

[월간] 2022年 8月 1日(월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3年 第 566 號

## 충민공 권종 금산군수 제430주기 추모제 봉행

박범인 금산군수 역사적 현장 너무 초라해 사당 등 추모 공간 마련 계획



아현관 양현일, 초현관 박범인 금산군수, 종현관 최대군, 곽근태 금산향교 전교, 김행규 향교의전부장(앞줄 오른쪽부터)



추모제를 봉행할만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순절비 바로 앞 도로에서 추모제 행사를 진행했다.

충민공(忠愍公) 권종(權悰, 22세, 추밀공파)금산군수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제430주기 추모제가 7월 20일 11시 충남 금산군 제원면 권종민공순절비 앞에서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장호 금산문화원장, 곽근태 금산향교 전교, 박경용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장, 제원2리 김남수 이장, 명암리 이종례 이장, 권경관 안동권씨 금산종친회장,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충민공의 후손 권기송 앙근공종회 회장, 권순성 전 앙근공종회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금산군이 주최하고 금산향교에서 주관한 이날 추모제는 초현관에 박범인 금산군수, 아현관 양현일, 종현관 최대군, 대죽 신창주, 알자 김행규 등으로 분장하였다. 박범인 군수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개티전투가 벌어졌던 처절했던 현장이다. 그 현장에서 추모제를 지내니 묵이 맨다. 비록 적은 군사였지만 수많은 왜군이 밀려와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고귀한 현신을 하신 권종 군수와 끝까지 함께 했던 아들과 군사들의 넋을 군민들과 함께 추모한다.

추모제를 통해 후손들은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은 취수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순절비가 있는지 개티전투가 벌어진 역사적 현장인지 조차 알 수 없는 혼란이었다. 추모제를 지낼만한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마치 골목길에서 지내는 모양새여서 뭇시 안타까웠다. 순절비는 1784년 고종 때 세웠으나 그 이후로 추모제도 지내지 않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던 것을 금산

에 거주하는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과 안동권씨 후손들이 금산군에 수차례 진정서를 낸 이후에야 겨우 추모제를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추모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박범인 군수는 “문화관광과장은 하면서 이곳에 수없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 현장이 너무 비좁고 초라하다. 안타깝다. 제가 군수로 있는 동안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당을 마련해서 모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행규

향교의전부장은 후손인 권기송 회장과 권순성 전 회장의

손을 붙잡고 차로 훌륭하신 조상을 두셨다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금산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충민공을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민공은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사 항전하다 순국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아무런 포장(褒獎)의 조치도 취하지 않자 아들 현이 세자에게 아버지 충민공의 유통함을 호소하고 또 손자 진(繼, 1572-1524)이 과거에 급제한 후 재상에게 할아버지의 충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나서야 1605년 선무원 종공신 1등에 책훈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된다. 1710년(숙종36)에 이르러서야 정려(旌閭)하고, 그 이듬해 1711년에는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권종민공순절비(權忠愍公殉節碑)는 충민공이 순절한 지 286년이 흐른 1878년(고종15)에서야 비로소 개티전투 현장에 세우게 된다.

충민공의 6대조는 조선 최초의 문현인 양준, 권근(1352~1409)이며, 5대조는 대제학 문경공 제(蹕, 1387~1445), 고조부는 연천현감을 지낸 휘(麾), 증조부는 양군수 교(喬), 할아버지는 강화부사를 지낸 적(勳), 아버지는 중립도찰방을 지낸 지(刺)이다. 영의정을 지낸 강정공(康定公) 권철(權轍, 1503~1578)이 작은아버지이고 권율 장군과는 사촌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취임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원이 7월 1일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장에 취임했다.

권혁열 의장은 제8대와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다.

제9대에서는 강원도의회 전반기 농림수산 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3면)



의장

## 7月 임원 회비 및 찬조금과 종보대금 납부 내역

### 부회장

권혁장 감사(세무법인 화인) 1,000,000

### 이사

권영준(인천) 300,000

합계 : 1,300,000원

### <찬조금>

복야공파 신한문중(회장 권태유) 200,000

합계 : 200,000원

### <증보발전기금>

검교공파종회(회장 권무탁) 200,000

합계 : 200,000원

### 종보대금(납부기간: 07.01.~07.27)

권동옥(부천) 30,000

권우달(양산) 30,000

권태용(울산) 30,000

권만진(상주) 30,000

권우범(서울강남) 30,000

권영로(경기연천) 30,000

권진현(함양) 30,000

권해조(서울서초) 30,000

권오수(부산) 100,000

권오수(안동, 신안동) 30,000

마창종친회 200,000

합계 : 570,000원

### 안동권씨대종회

##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문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